

HD현대삼호 '제2돌핀 의장안벽' 준공

1천102억원 투입 최대 4척 선박 동시 계류 가능 서남권 조선업 재도약 청신호 일자리 창출 기대

총 1천102억원이 투입된 제2돌핀 의장 안벽이 10일 영암 HD현대삼호에서 준공됐다. 돌핀 의장 안벽은 LNG운반선 건조에 필수시설이다.

이날 HD현대삼호 제2돌핀 의장 안벽 준공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를 비롯해 권오갑 HD현대 회장, 신현대 HD현대삼호 사장, 김형관 현대미포 사장 등 HD현대 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돌핀 의장 안벽은 조선소 도크에서 선박을 진수한 후 계류시켜 의장, 전기배선 등 선박 건조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는 시설이다. 일종의 부둣가와 유사한 개념이다.

기존 선박의 경우 안벽 공정에 통상 2개월이 소요되는데 반해, HD현대삼호의 주력 선종이자 대표 친환경 선박인 LNG운반선은 7개월이나 소요된다.

이로 인해 HD현대삼호는 안벽 부족으로 친환경 선박 추가 수주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번 안벽 신설로 연간 최대 6척의 선박을 추가 건조할 수 있게 돼 1조5400억원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서남권 조선산업이

그동안의 긴 불황을 뚫고 본격적으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HL디앤아이한라가 시공한 제2돌핀 의장 안벽은 사업비 총 1천102억원이 투입됐다. 총길이 383m에 이르며 차량

용 도로 146m, 등부표, 오락방지막 등을 갖췄다. 한 번에 최대 4척의 선박을 계류할 수 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제2돌핀 안벽은 단순한 선박 건조시설 확대를 넘어 서남권 조선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HD현대삼호의 친환경 경쟁력 강화로 지역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만3천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HD현대삼호는 지난해 매출액 5조9천588억원, 영업이익은 3천17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매출액 4조6천464억원, 영업이익 177억원) 대비 매출액은 28.2%, 영업이익은 무려 1천604.5%나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는 조선업계 꿈의 영업이익률 10%를 돌파하며 10.92%를 달성, HD현대그룹에서도 알짜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시원 기자



10일 영암 HD현대삼호아드에서 열린 '제2돌핀 의장안벽 준공식'에 참석한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 내빈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HD현대 제공>

민선 8기 현안 해법·시정 방향 모색

광주시, 오늘 제4차 시민단체협의회 토론회 개최

광주시가 시민사회단체와 광주 발전을 위한 협력과 연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통을 이어간다.

광주시는 11일 오후 3시 시청 시민홀에서 '제4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토론회'를 열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시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30일 첫 번째 소통을 가진 데 이어, 지난해 7월12일 2차 토론회에서는 품앗이, 복합쇼핑몰, 보육대체교사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3월28일에는 '중앙공원1지구 관련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단체와 '골장토론'을 벌였다.

특히 4차 토론회는 지난해 7월12일 제2차 토론회에서 민선 8기 2년이 되는 시점에 2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시정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전은옥 광주시 정책기획관

이 '민선 8기 2년 현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기우식 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광주시정 2년' 평가를 발표한 뒤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4개 주제와 광주시가 제시한 2개 주제에 대한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여성(저출생 정책, 여성 폭력 시술 지원 확대 제안, 성평등 정책 등) ▲지방자치와 행정혁신 ▲환경과 교통(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등) ▲도시 문제(자신C, 대규모 공공 건축물 전환, 도시철도 2호선 등) 등 4개 주제에 대한 질문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군공항(추진 현황 및 시민사회와 협력 방안 등) ▲대자보 도시(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 및 협력 방안 등) 등 2개 주제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전남개발공사 ESG 경영 실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첫 발간

전남개발공사는 10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과정을 담은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최초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3년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중 전남개발공사는 최초로 ESG 경영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지역 협력사들과 도민들을 위해 다양한 ES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보고서에서 경영 비전 '튼튼한 도민행복 실현 파트너, 전남개발공사'를 기반으로 실천해온 ESG 전략 방향과 실천 성과를 담았다.

특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는 지방공사임에도 보고서를 발간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광주 주요 현안·호남권 메가시티 논의

제6회 정책포럼...김시덕 교수 "광주-전주 철도 건설 필요"

광주시와 광주정책연구회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국도시의 미래 20년 뒤에 살아남는 도시는 어디인가?'를 주제로 제6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광주시의 주요 현안과 광주·전남·전북의 호남권 메가시티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포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김시덕 교수(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는 '광주와 전남·전북의 미래'를 주제로 메가시티 조성에 관한 타 지자체 사례와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주시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호남권 메가시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주, 나주, 전남의 동부와 서부지역 등을 아우르는 광주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동서를 연결하는 광주-대구 달빛철도도 의미가 있지만, 호남권 내 도시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호남권 양대 도시를 연결하는 광주-전주 철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인구 감소 문제는 신도시 조성 등 인위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주변 도시끼리 연합을 통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맞서야 한다"며 "대부분 메가시티 조성을 시도한 지자체들이 지역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양보하고 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광역도의 지위를 내려놓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포럼'은 광주시와 광주정책연구회(광주시 산하 1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연구모임)가 공동 주최해 광주의 중장기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 기관별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 공론 플랫폼이다. /박선강 기자

전남도, '고향올래' 공모 2년 연속 선정

'신안군 예술파시'...생활인구 유입 등 지역 활력 기대

전남도는 10일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GO郷 ALL來) 공모'에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두 지역 살이 분야로 '신안군 예술파시'다.

고향올래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2023년부터 시행하는 '생활인구' 유입 사업이다.

사업은 ▲두 지역 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위케이션 ▲은퇴자마을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특고세 100억원·지방비 100억원)이다. 공모 결과 '신안군 예술파시(波市)' 등 전국 12개 사업이 선정됐다.

'신안군 예술파시'는 임자도의 독특한 섬 문화 중 하나인 파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술가를 신안군에 유입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추진한다. 파시는 고기가 한창 잡힐 때 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 시장이다. /박선강 기자

예술파시 사업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해 예술인 주거공간 및 공방 조성, 예술 아카이빙·특성화 이벤트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은 10억원으로 특고세 50%, 지방비 50%가 지원되며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다. /김재정 기자

시, 효천지하차도 등 10개 지명 고시

일제강점기에 사용한 일본식 표기 의심 지명인 광주 남구 '화방(房)산'이 '화방(芳)산'으로 바뀐다.

광주시는 10일 "최근 광주시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인공 지명 9건 명칭 제정안과 자연 지명 1건의 명칭 변경안이 결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여한 신규 고시명은 남구 지역에 설치된 도로시설물인 '효천지하차도'와 '효천2육교'를 비롯해 '지석제공원', '달외달팽이마을어린이공원', '개동공원', '맹간제공원', '대지공원' 등 공원이다. 또 광산구 '첨단지하차도'와 '단전어린이공원'이 포함됐다. /박선강 기자

경철정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임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군 브로커